



목소리로... 호돌이 탈에... 몸짓으로

숨은스타 있어 야구가 즐겁다



▲장내 아나운서 박은지

“무등벨 울리는 천사의 목소리”

‘3번 타자, 장·성·호~’.
 낭랑하고 푹 떨어지는 목소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7음계 중 ‘솔’에 해당하는 듣기 좋은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한다.
 KIA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 예쁜 목소리로 먼저 반겨주는 이가 바로 박은지(25)씨다. 박씨는 벌써 4년차 베테랑 장내 아나운서다. 2003년 KIA구단 출판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박씨는 2004년 구단의 권유로 장내 마이크를 잡았다.
 “아나운서를 맡기 전에 야구를 전혀 몰랐다”는 박씨는 “지금은 어느 누구와도 야구 이야기로는 지지 않는다. 야구는 매력적인 스포츠”라며 애찬론을 펼쳤다. 선수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홍세완’이라고 답한 박씨는 “홍세완 선수를 소개할 땐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며 수줍게 웃었다.



▲호돌이맨 김윤호

“오직 KIA팬 만을 위해 존재한다”

광주구장에 가면 그라운드와 관중석을 뒤흔치는 호돌이 캐릭터를 만나게 된다. 그의 인기는 웬만한 스타급 선수 못지 않다. 선수들의 독특한 버릇이나 동작을 패러디해 관중들을 웃기고, 가끔은 KIA가 수비할 때 심판에게 달려가 삼진폼을 보여주며 은근히 삼진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즐거운 캐릭터인 호돌이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다. ‘호돌이’ 김윤호(25)씨는 고교시절만 해도 야구 유망주였다. 군상상고 시절 투수와 유격수를 번갈아 맡던 그는 유격수 수비 도중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 어깨도 크게 다쳤다. 3년동안 4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다친곳이 많이 아프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좋아하는 야구장을 떠날 수가 없었고, 지난 2005년 호돌이로 변신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구단버스 기사 유민호

11년째 안전운행 ‘KIA 터줏대감’

KIA의 1호차 구단버스 운전자인 유민호(50)씨는 11년째 호랑이 버스를 몰고 있다. 그동안 두번이나 팀의 우승을 맛보기도 했다.
 11년 무사고 경력을 뽐내는 유씨는 “대부분 야간경기를 끝내고 이동하는 탓에 선수들은 버스에 깊은 잠을 잔다. 그래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나의 운전 노하우”라고 밝혔다.
 선수들이 버스에 오르는 표정만 봐도 대충 그날의 경기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는 유씨는 “팀이 연패를 당하고 타구장으로도 이동할 때 버스안에 감도는 정적감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KIA 1군에는 1호차와 2호차가 있는데 1호차는 감독과 야수 코치진 및 선수들이, 2호차엔 수석코치와 투수코치진 및 선수들이 탄다. 버스는 우등고속버스타인 28인승보다 3좌석이 적은 25인승으로 앞뒤 간격이 약간 넓다.

프로야구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스타급 선수들에게 집중된다. 스타가 없는 프로 스포츠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들도 경기장 밖에서 희생하는 숨은 스타들이 없다면 그 빛을 낼 수가 없다.
 광주구장에서 프로야구 한 게임 치르기 위해서는 KIA구단 직원 37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력이 숨가쁘게 움직인다. 우선 경비원 14명이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곳곳에 배치되고, 매표창구엔 2명이 배치돼 티켓 판매에 바쁜 손을 움직인다.
 또 경기 시작전과 5회 종료 후 클리닝 타임 때는 6명의 구장 관리 요원이 흐트러진 그라운드의 땅을 긁고 고르고, 아르바이트생 19명은 지정석과 정문, 후문, 중문, 각 루 출입구 등에서 안내 업무를 도맡는다. 일당 2만 5천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매년 시즌 시작 전 공개 채용 방식으로 뽑는다. 경기가 시작되면 치어리더 4인방의 화려한 응원소와 KIA의 캐릭터인 ‘호돌이’가 경기장과 관중석을 증행시킨 누비며 관중들의 흥을 북돋는다. 하루 경기가 마감되는 늦은 밤 운동장 밖 주차장에 선 선수단을 태울 1, 2호차 구단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스타를 만들어 내는 광주구장의 숨은 스타들의 속으로 들어가 봤다.

치어리더는 선수와 팬을 이어주는 ‘은하수’ 같은 존재다. KIA 치어리더 4인방 중 막내인 박영선(22)씨는 “손짓 하나로 관중들과 일체감을 느낄때 가장 신난다”고 말한다. KIA구단 치어리더는 모두 4명으로 ‘코레일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는데 박씨는 2년째 KIA를 응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 대전 경기 때 팔에 붕대를 감고 응원단을 이끈 것으로도 잘 알려진 박씨는 “당일 날 아침에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에 금이 갔는데, 중요한 경기라서 빠질 수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종종 지긋은 관중을 만날 땐 속상하다고 한다. 박씨는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다리만 찍는 사람이 있다”면서 “짜려보면 아닌척 하다가 또 그러는데 제발 자제 좀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씨는 그러나 “힘들때 이만큼 불러주고, 음료수도 건네주는 좋은 팬들이 훨씬 많아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치어리더 박영선

“디카로 다리 찍는 관중은 NO”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할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치어 펄볼링장 송하동 광주대입구4층 대표 윤보미 ☎(062)675-0141	종가집생태탕 비아동 714번지 생태탕 전문점 대표 사공신희 ☎(062)955-5006	샐터곱창 운수동 광산경찰서앞편 내장국밥,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모듬국밥 대리, 고기수육, 새끼보, 광명구이, 전골, 곰창볶음 ☎(062)942-6331	큰웃전문점 크레빅 북동 롯데백화점점 앞 패션전문 빅앤빅(11:00~22:00) 대표 임지수 ☎(062)522-8899	코리아부동산컨설팅 신기동 신기지구 주공@건대편코너 건축상담, 리모델링, APT, 토지, 상가전문 대표 김성현 ☎(062)951-1989	장터국밥소주방 북동 수창초등학교뒤 중앙동시우시장앞편 소머리국밥, 국밥, 김치찌개, 조미면, 오리탕전문 대표 정순옥 ☎(011)9475-8890	
	온누리이화당약국 진월동 438-13번지 병원 처방전문 약사 신동숙 ☎(062)672-5512	명가오리 도천동 비아동출입로옆 석판구이, 전골, 훈제, 백숙전문 대표 김정미 ☎(062)956-5272	터편의휴게소 오차동 오차사거리에서 북부소방서사이 저렴한 술과안주 대표 김정미 ☎(010)4620-2910	굿모닝부동산사무소 용봉동 전철우암역건너편3층 건물, 토지, 분양, 개발, 경매, 투자, 세무, 법률전문 매대에서 듣기까지 책임중개 ☎(062)515-4585	미담식당 운수동 서방사거리너 구국은행뒤편 김치갈비찜, 석갈비전문점 대표 이정순 ☎(062)524-2091	흙조음식나라 유등 삼상명원뒤 생고기, 생삼겹살, 돼지갈비, 제육볶음, 삼계탕 오리로스, 조기탕, 곰탕, 소내장탕, 냉면 ☎(062)511-5921	
홍도아구탕 목포 신정동 대성동사거리 삼상명원옆 아구요리의 명가 최선의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1)274-8389	길명우렁쌈밥 영광군·읍 도동리 시장동 우렁쌈밥, 장어구이, 김치찌개, 생태탕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1)353-0064	항아리횃집 운수동 서방사거리너 구국은행뒤편 이구령, 우렁, 장어, 오리, 갈비, 회, 세고시 대표 이영자 ☎(010)9220-8805	산발들마트 소촌동 서라1.2차@101동앞 케서, 아르바이트, 커리어경력있는반수시모집 오전: 30~오후: 30 / 오후: 30~오후11:30 ☎(062)945-2277	배드민턴활인매장 양산동 양산초입구사거리 활인매장 대표 조훈 ☎(062)430-8793	바다봉장이숯불구이 일곡동 광주은행뒤 신탄앞 소금양념구이, 장어탕, 호박, 새끼보, 호박, 새끼보 대표 정은영 ☎(062)575-3014	심청축산 중흥동 말바위사거리동 동부시정건너 수입소고기, 전문, 미역, 소, 돼지고기, 소, 돼지고기 대표 문영내 ☎(010)9843-0207	무등산감자탕 운남동 운남역사거리목내 감자탕전문점 대표 허재경 ☎(062)952-5666
단지촌동명점 목포시 동명동 남초등학교옆 대표 최익성 ☎(061)244-9295	한백년결혼상당소 북동 천주교건너편 국제결혼, 초혼, 재혼 전문업체 상담을 환영합니다 ☎(062)527-6672	장강 진월동 광주대입구앞 심선명, 콩물, 수육, 생선, 김치찌개, 신속배달 대표 김명선 ☎(062)675-1536	금원정 도산동 구광산경찰서뒤편 도로변 보신탄, 생태탕, 수육, 전골, 단애, 약산, 한방 대표 임은애 ☎(062)944-2332	광주근로자대기소 동림동 동천마을 주공1단지대로앞 철거, 리모델링, 개보수 일일근로자 수시모집 ☎(062)434-8204	온누리추어탕 봉선동 무등파크2차위 추어탕전문점 대표 박상순 ☎(062)671-7066	프로통상 임동사거리에서 전대사거리쪽50M 지동차광택, 기차수수입, 제조판매 소장 박상철 ☎(062)526-8136	큰집떡볶이 봉선동 남구 문화예술회관뒤 우리농산물로 직접담근 목돈이 심검떡 숙이원한 콩나물해장국@1년 전품 전주의집 ☎(062)673-2292
정희이용원 영광군·읍 도동리 구나무전사거리 신장개업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1)353-8894	수일통닭 주월 진월점 진월동 광주대입구 30년 전통의 명가 예약·단체주문환영 ☎(062)674-8292	채플린헤어 화정동 경덕고후에서 염주동광주은행사거리쪽 예술올림픽 W.B.C.선수관대피처, 파파리우수상수상 20년 경력보유, 시은, 품무로, 중점 ☎(062)433-7132	동훈신발유통 운수동 광산경찰서옆 평동공단입구 골대옆 각종 신발, 의류, 도, 소매전문 대표 김준수 ☎(011)9439-7605	지엘영재학원 양산동 양산초입구사거리3층 영재학원 이사장 김후남 ☎(062)575-9188	회조림 봉선동 동화양근거리 방치, 준치, 갈치, 회, 회집, 무침, 기로, 조려하여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음식점 ☎(062)672-0748	월드스포츠 게임동 진주구사거리에서 대인동소방서쪽 일본, 호주, 미국, 영국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경기, 경정, 경률, 경전, 실전, 경주를 느껴보십시오 ☎(010)6449-0909	전주콩나루 콩나물국밥 금남로5가 롯데백화점과 대진증권사이 거꾸로 자라는 콩나물 대표 윤재성 ☎(062)226-0509